

#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가정을 넘어서

김 상 배  
(서울대학교)

## < 차례 >

- |                      |                             |
|----------------------|-----------------------------|
| I. 머리말               | 2. 네트워크국가의 가정               |
| II. 네트워크이론과 네트워크의 개념 | 3. 네트워크아키(networkarchy)의 가정 |
| III. 네트워크시대의 국제정치이론  | V. 맺음말                      |
| IV.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                             |
| 1. 네트워크권력의 가정        |                             |

· 주제어: 네트워크, 세계정치, 국제정치, 변환, 네트워크국가, 네트워크권력, 네트워크아키, 세계질서, networks,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s, transformation, network state, network power, networkarchy, world order

## 【한글초록】

글자 그대로 국제정치학은 ‘국(國, nation) 사이(際, inter)의 정치(政治, politics)’, 즉 국제정치(國際政治, international politics)를 주로 탐구하였다. 실제로 기존의 국제정치 연구는 주요 ‘행위자’로서 국민국가(nation-state) 간의 양자 또는 다자 ‘관계’를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그런데 최근 현실의 변화는 이렇게 국가를 주요 ‘노드(node)’로 설정하고 그들 간의 ‘링크(link)’에 주목하는 평면적 발상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국가 노드를 반드시 거치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초국가 네트워크 형태의 활동이 새롭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노드 자체도 그 안과 밖으로 네트워크화되는 변모를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전통적인 국제정치와 새로운 세계정치가 서로 경합을 벌이는 ‘네트워크 간의 정치’, 즉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이론’을 국제정치학의 분야에 원용하여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Network Theory of World Politics, NTWP)’을 모색하는 시론(試論)을 펼쳤다.

## I. 머리말

글자 그대로 국제정치학은 ‘국(國, nation) 사이(際, inter)의 정치(政治, politics),’ 즉 ‘국제정치(國際政治, inter-national politics)’를 주로 탐구하였다. 실제로 기존의 국제정치 연구는 주요 ‘행위자’로서 국민국가(nation-state) 간의 양자 또는 다자 ‘관계’를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20세기 국제정치이론의 주류를 형성해온 현실주의는 바로 이러한 ‘국 사이의 정치’를 이론적으로 탐구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 의해서 그려진 국제정치는 합리적 행위자인 ‘국민국가’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대변되는 ‘권력’의 추구를 통해서 스스로의 안보를 자조(自助, self-help)하는 ‘무정부상태(anarchy)’의 모습이었다. 흔히 ‘권력추구의 가정,’ ‘국가중심의 가정,’ ‘무정부상태의 가정’의 세 가지 기본가정<sup>1)</sup>으로 요약되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의 이미지는 지난 세월 우리가 빈번히 착용해왔던 ‘개념적 렌즈’로서의 위력을 톡톡히 발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수많은 비판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20세기 국제정치이론에서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위상을 굳건히 유지해왔다.

최근 들어 관찰되는 현실의 변화는 국가 행위자를 주요 노드(node)로 하는 ‘노드 간의 정치(inter-nodal politics)’의 시각만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네트워크 세계정치(the world politics of networks)’의 현상들이 출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sup>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이나 지구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 등과 같이 태생적으로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는 비(非)국가 행위자들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21세기 세계정치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네트워크형 행위자들이 벌이는 권력정치의 메커니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이 노드가 보유한 물질적 권력자원의 의미를 넘어서, 문화·이념·외교 등과 같이 네트워크의 맥락에서 작동하는 비물질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의 시대를 맞이하여 위협의 요소가 다층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개별 노드 차원의 자조만으로는 안보가 확보될 수 없다는 인식도 커져 가고 있다. 이렇듯 행위자의 성격뿐만 아니라 권력과 안보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면,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국민국가와 전통적 권력의 개념의 연속선상에서 상정했던, 무정부상태라는 세계질서에 대한 가정도 수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요컨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특권적으로 제시해왔던 평면적 가정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최근의 세계정치 변화가 너무나도 입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딛고 서 있는 ‘세 가지 기본가정’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다. 이 글은 1980년대 중반에 월츠(Kenneth N. Waltz)의 신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 작업을 벌인 Robert O.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으로부터 세 가지 가정을 착안하였다. 이 글이 원용한 세 가지 가정, 즉 권력추구, 국가중심, 무정부상태의 가정은 월츠가 제시한 세 가지의 분석수준, 즉 인간본성, 국가, 체제의 수준에서 각각 도출되었다.

2) 이 글은 국가뿐만 아니라 초국가 및 하위국가 행위자들이 벌이는 정치에 주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와 짝을 이루는 용어로서, ‘국제정치’나 ‘지구정치(global politics)’가 아닌 ‘세계정치’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국제정치학에서 ‘국제,’ ‘지구,’ ‘세계’라는 용어의 개념적 구별에 대한 지적으로는 하영선, “세계정치의 변환과 한반도,” 하영선·남궁곤 편, 『변환의 세계정치』(을유문화사), p.19를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기존의 ‘노드 기반 이론(node-based theory)’을 넘어서는 ‘네트워크 기반 이론(network-based theory)’의 발상이다.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세계정치의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정치이론도 노드 차원의 발상을 넘어서 좀 더 본격적인 네트워크의 발상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은유적으로 말해, 신현실주의 이론가인 월츠(Kenneth N. Waltz)가 그의 저서<sup>3)</sup>에서 제목으로 제시했던 ‘국제정치이론(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TIP)’을 넘어서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network theory of world politics, NTWP)’의 발상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만약에 네트워크의 시각으로 21세기 세계정치를 본다면,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 네트워크의 시각을 채택한 새로운 이론이 기존의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보다 세계정치의 현실을 좀 더 낫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네트워크는 어떠한 맥락에서 출현하여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누가 주요 행위자로서 득세하게 될까? 그리고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등장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모습의 세계질서를 창출하게 될까?

기존의 국제정치학 분야에서도 복합적인 양상으로 드러나는 네트워크의 세계정치를 이론적으로 탐구하려 시도한 예외적인 작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은 기존 주류 이론 진영 내에서 노드 차원의 이론화를 넘어서는 시도를 펼친 것으로 평가되는 로즈나우(James Rosenau)의 작업을 들 수 있다. 네트워크이론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복잡계 이론(complex theory) 일반을 국제정치학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를 벌인 저비스(Robert Jervis)의 연구도 눈에 띈다. 국제레짐이나 정보국가(information state)의 ‘자기조직화(autopoesis)’ 메커니즘 분석에 복잡계 이론의 시각을 도입하고 있는 브라만(Sandra Braman)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몇 가지 작업들도 아직은 시론(試論)의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좀 더 근접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내외 국제정치이론 연구 일반은 여전히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부상에 대해서 매우 더디게 반응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sup>4)</sup>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3)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

4) James N. Rosenau, *Turbulence in World Politics: A Theory of Change and Continu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James N. Rosenau,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 Governance*, 1, (1995), pp.13-4; James N. Rosenau, *Distant Proximities: Dynamics beyond Global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Robert Jervis, *System Effects: Complexity in Politics and Social Lif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Sandra Braman, ed., *The Emergent Global Information Policy Regim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Sandra Braman, *Change of State: Information, Policy, and Power*,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6); 민병원, 『복잡계로 풀어내는 국제정치』 (삼성경제연구소, 2005); 하영선 편,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동아시아연구원, 2006);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올유문화사, 2006); 김상배, “복잡계이론과 네트워크 세계정치론,” 삼성경제연구소 복잡계 심포지엄 발표논문, (2006).

‘네트워크이론’의 성과를 원용하여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를 이론적·개념적으로 파악하는 시론의 작업을 펼치고자 한다. 좀 더 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글은 앞서 언급한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기본가정을 비판·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현실주의의 기본가정을 모두 폐기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네트워크 세계정치가 부상한다고 해도 국가 행위자에 의한 물질적 권력정치의 메커니즘이 세계정치의 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새로운 행위자들의 활동을 규제하려는 국가의 견제도 만만치 않으며, 아무리 초국가적으로 넘나드는 행위자들이 부상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주권적 권위는 국가의 몫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세 가지 기본가정을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네트워크권력(network power)의 가정,’ ‘네트워크국가(network state)의 가정,’ ‘네트워크아키(networkarchy)의 가정’을 제안하였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기초적 검토를 통해서 향후 진행될 경험적 작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시론의 차원에서 던진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화두는 앞으로 구체적인 경험적 작업을 통해서 보완·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 제시한 세 가지 주요 개념, 즉 네트워크권력, 네트워크국가, 네트워크아키를 최근 한반도 주변정치의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해 보는 문제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 연구의 적절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개념들에 투영해서 보았을 때, 탈냉전과 탈탈냉전(post-post Cold War) 이후의 세계질서는 얼마나 복잡한 네트워크질서를 창출하고 있을까? 또한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렌즈로 보면,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주변의 ‘4망(網)’ 즉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네 개의 네트워크국가들이 벌이는 세계정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 주변 국가들이 벌이는 네트워크권력의 다툼 속에서 한국이 추구할 네트워크 국가전략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시도하지 못했지만, 이 글의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할 경험적 연구의 추진은 향후 네트워크 세계정치 연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이론을 간략히 개괄하고, 이로부터 이 글에서 원용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시각에서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한계와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의 시도가 지니는 의미를 짚어 보았다. 제4장에서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이 제시하는 세 가지 기본가정을 권력론, 국가론, 세계질서론의 차원에서 모색하였다. 맺음말에서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에 대한 주장을 요약하고, 앞으로 이 글의 논의를 뒷받침할 경험적 연구의 방향을 한반도 주변정치의 맥락에서 간략히 지적하였다.

## II. 네트워크이론과 네트워크의 개념

‘네트워크(network)’는 최근 학계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용어 중의 하나이다. 국

제정치학의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네트워크 개념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노드(node)들의 집합”이다.<sup>5)</sup> 노드들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링크(link)라고 하고, 이러한 링크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노드가 형성된다. 노드와 링크의 내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인간만사 모든 것이 네트워크가 아닌 것이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맥, 학맥, 혈맥에서부터 교통망, 방송망, 통신망이나 상품의 판매망과 종교의 포교망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고 움직인다.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관찰되는 정치군사 동맹이나 국제무역, 사람과 문화의 교류 등도 모두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빌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 글이 탐구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파악된 ‘단순 네트워크’는 아니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에서 파악된, 그렇기 때문에 최근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복합 네트워크’의 부상이다. 보통명사로서의 ‘네트워크(network)’ 라기보다는 고유명사로서의 ‘네트워크(Network)’ 라고나 할까? 이러한 복합 네트워크는 단순히 노드와 노드가 링크로 연결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렇게 연결된 노드와 링크의 집합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이 이전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물리학이나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이러한 복합 네트워크의 물리적·사회적 구조를 밝히려는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up>6)</sup> 자연계 생물의 네트워크나 기술과 통신의 네트워크, 그리고 인간 네트워크 등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밝히려는 것이 이들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다. 위계적 아키텍처를 갖는 전통적인 형태의 ‘조직(organization)’ 과 비교할 때 이들 복합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는 ‘레고 블록(Lego bloc)’ 처럼 그 형태와 규모의 조절이 용이하다. 각 구성요소들의 밀접한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의 작동방식과는 달리,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 네트워크는 ‘아메바’ 와도 같이 유연하게 움직인다. 위계적 조직에서는 어느 한 구성요소의 제거가 조직체계 전체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복합 네트워크에서는 어느 노드와 링크가 잘려 나가더라도 네트워크 전체가 붕괴되는 일은 없다. ‘도마뱀의 꼬리’ 처럼 손상된 노드와 링크를 복구하면 그만이다. 최근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발달은 이러한 복합 네트워크의 부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sup>7)</sup>

그렇다면 왜 이러한 복합 네트워크의 부상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복합 네트워크가 부상함에 따라 기존에는 위계적 조직이 독점하고 있던 권력의 소재(所在)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복합 네트워크의 메커니즘에 의지하여 기존에는 힘도 없고 돈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소수자들이 큰 세력을 얻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5) Manuel Castells, “Informationalism,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A Theoretical Blueprint,” in Manuel Castells, 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2004), p.3.

6) Albert-László Barabási,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2002); John Urry, *Global Complexity*, (Cambridge: Polity, 2003); 던컨 와츠, 『Small World: 여섯 다리만 건너면 누구와도 연결된다』 (세종연구원, 2004); 말콤 글래드웰, 『티핑 포인트』 (21세기북스, 2004).

7) 정보혁명의 맥락에서 본 네트워크의 개념과 사례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Manuel Castells,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2000).

그렇다고 권력이동이 어느 한 방향으로만, 즉 위계적 조직으로부터 복합 네트워크의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예를 들어, 복합 네트워크의 부상에 대한 기성 권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위계적 조직이 역으로 네트워크의 논리를 수용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시대를 맞이하여 권력변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다.<sup>8)</sup>

이렇게 특수한 의미로 네트워크의 개념을 한정하더라도 그 개념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사실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워낙 포괄적이어서 여전히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특히 네트워크는 그 외연과 내포가 명확하지 않은 대표적인 개념 중의 하나이다. 간혹 인간만사 모든 것이 다 네트워크로 설명되는 ‘개념적 확장(conceptual stretching)’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네트워크의 개념을 어느 차원에서 보아야 할까? 예를 들어, 네트워크는 노드와 허브(hub)들이 만들어가는 과정(process)인가? 노드와 허브들을 제약하는 일종의 구조(structure)로 네트워크를 보아야 할까? 아니면 네트워크 그 자체가 일종의 행위자(actor)인가? 이렇게 어느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볼 것이냐의 문제는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 네트워크이론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먼저 사회학과 인류학 및 사회심리학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에서는 주로 네트워크의 개념을 ‘과정’의 차원에서 이해한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방법론적으로 정교화된 수학적 모델링이나 시각화 테크닉을 통해서 연결망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연결망의 전반적인 연결도, 호혜성과 상호성의 정도 등을 주로 탐구한다.<sup>9)</sup> 이에 비해 경제학과 사회학 분야의 조직이론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는 ‘조직 네트워크 분석(organizational network analysis, ONA)’은 ‘구조’의 차원에서 파악된 네트워크의 유형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이들 연구의 전제는, 사회조직의 네트워크 형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였지만, 새로운 정보기술 시대의 경쟁 환경에서 요구되는 유연성, 적응성, 반응속도 등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네트워크형 조직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0)</sup> 한편 과학사나 과학사회학에서 원용되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에서는 네트워크를 일종의 ‘행위자’로서 이해한다. 그러나 여기서 행위자란 노드와 같이 개체론적으로 파악되는 행위자는 아니고, 오히려 행위자와 구조가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하는 행위자인 동시에 네트워크인 존재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로서의 행위자는 ‘자기조직화’의 메커니즘을 갖는 일종의 ‘메타 행위자(meta-actor)’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8) Yochai Benkler,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6).

9) 김용학, 『사회 연결망 이론』 개정판. (박영사, 2007). 국제정치학의 분야는 아니지만 비교역사학의 연구에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한 작업으로는 다음을 참조. Roger V. Gould, "Uses of Network Tools in Comparative Historical Research," in James Mahoney and Dietrich Rueschemeyer, ed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Social Scienc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241-269.

10) 카스텔(Manuel Castells)의 일련의 저작은 바로 이러한 ‘조직 네트워크 분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1) Bruno Latour, *Reassess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이상의 세 가지 차원에서 파악된 네트워크의 개념은 모두 네트워크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우선,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또는 이러한 노드들이 구성하는 노드의 그룹이나 네트워크 전체를 하나의 ‘행위자’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특정한 경계’를 갖는 노드와 링크의 집합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그 자체가 ‘분석의 단위’이자 ‘행위의 단위’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자로서의 네트워크는 그 실체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네트워크는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노드와 노드들이 연결되어 링크를 만들어 가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층위에서 이해된 네트워크란 노드의 집합이 보여주는 ‘행위의 패턴’인 동시에 노드의 집합에 대한 일종의 ‘관리양식’을 의미한다. 카스텔(Manuel Castells)이 네트워크의 속성을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함에 있어서 유연하고(flexible), 규모의 조절이 가능하며(scalable), 재생 가능한(survivable) 실체로서 요약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가 보여주는 동태적 과정에 주목했기 때문이다.<sup>12)</sup>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단 형성된 네트워크는 그 구성요소인 노드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일종의 ‘구조’로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네트워크의 개념은 이상에서 설명한 행위자, 과정, 구조의 세 층위를 모두 동원하여 이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네트워크는 노드들이 연결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갖는 노드와 링크들의 조합, 즉 ‘구조’가 생성된다. 그런데 이렇게 생성된 네트워크에서 노드와 구조를 구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노드와 구조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가는 ‘체제(system)’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는 ‘자기조직화’의 메커니즘을 밝아가는 일종의 ‘메타 행위자’ 또는 ‘행위자-네트워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행위자’이자 ‘과정’인 동시에 ‘체제’로 이해된 네트워크의 개념은 노드의 발상에 머물고 있는 기존의 국제정치이론, 특히 현실주의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을 가하고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 Ⅲ. 네트워크시대의 국제정치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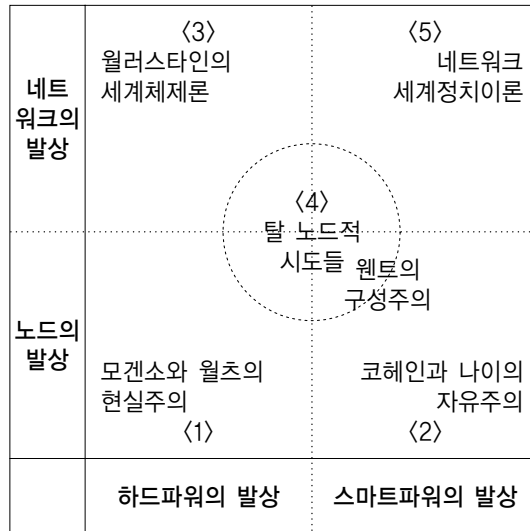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은 네트워크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세계정치 현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간결한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 다소 도식적으로 각 이론 진영의 입장 차이를 대비해보면, <그림 1>과 같이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세로축은 각 이론이 설정하고 있는 분석단위가 행위자 차원의 ‘노드의 발상’을 기반으로 하느냐, 아니면 개별 행위자 차원을 넘어서는 ‘네트워크의 발상’을 갖느냐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가로축은 각 이론이 주안점을 두는 국제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John Law and Annemarie Mol, eds., *Complexities: Social Studies of Knowledge Practices*, (Duke University Press, 2002).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국제정치에의 적용 사례로는 다음을 참조. Joseph MacKay, “State Failure, Actor-Network Theory, and the Theorisation of Sovereignty,” *BSI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3, (2006), pp.59-96.

12) M. Castells, “Informationalism,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pp.4-6.

정치의 권력메커니즘이 소위 ‘하드파워(hard power)’의 발상에 머물고 있으나, 아니면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soft power)’도 포함하는 ‘스마트파워(smart power)’의 발상까지도 포함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누었다.<sup>13)</sup> 이러한 분석틀을 가지고 살펴보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마르크스주의 등으로 대별되는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은 대략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위상



〈그림 1〉의 〈1-영역〉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자. 현실주의의 국제정치이론은 전형적으로 노드의 발상에 기반을 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실주의의 국제정치이론은 ‘부국강병(富國強兵)’으로 대변되는 ‘하드파워’를 추구하는 국민국가들 간의 관계를 주로 탐구한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보면, 국민국가들 간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이하 BoP)이 현실주의의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고전적 현실주의를 비판하고 나선 월츠(Kenneth Waltz)의 신현실주의의 국제정치이론도 노드들 간의 물질적 권력의 분포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조(structure)’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BoP의 발상에 머물고 있다.<sup>14)</sup>

자유주의의 국제정치이론은 현실주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발상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모겐소(Hans Morgenthau)나 월츠와 함께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코헤인(Robert Keohane)과 나이(Joseph Nye)의 복합 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dence)에 대한 논의는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나름대로 선구적인 시도이다.<sup>1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진행된 코헤인과 나이의 작업을 살펴보면, 국제

13)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및 스마트파워의 개념적 구분에 대해서는 Joseph S.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를 참조.  
 14)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48); K.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서 국민국가를 여전히 논의의 중심으로 삼는 노드의 시각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sup>16)</sup> 다만 나이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논의는 노드의 속성이나 노드가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이 아닌 관계적 맥락에서 우리나라오는 권력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탈(脫) 노드적 발상의 단초를 보인다.<sup>17)</sup>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그림 1>의 <2-영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웬트(Alexander Wendt)의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도 여전히 국가 중심의 노드 발상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그림 1>의 <2-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웬트는 사회이론의 시각에서 신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관념(ideas) 변수에 의해서 이익(interests) 변수가 구성되는 국제정치의 일 단면을 밝혀내고 있지만, 그의 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국제정치의 기본 단위는 여전히 노드로서의 국민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국가 행위자라는 노드에 시각을 고정된 신현실주의의 몰(沒)사회이론으로의 문제점을 이론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다보니까 생겨난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이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비해서 탈 노드적 이론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더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sup>18)</sup>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보면, 기존의 소위 주류 국제정치이론 진영은,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전히 노드의 시각에 머무르는 한계를 안고 있다. 노드에 고착된 기존의 시각을 넘어서려는 시도들이 간간히 엿보이지만, 여전히 부분적이거나 또는 암묵적인 차원에서만 네트워크의 시각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노드의 하드파워를 기반으로 하는 평면적인 BoP의 발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간혹 소프트파워의 메커니즘이나 국제정치에서 관념 변수의 역할을 논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노드로서의 국가 행위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간의 평면적 관계에 시야가 고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마르크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기존의 주류 이론에 비해서 일찌감치부터 탈 노드적인 성향을 보여 주었다. 특히 <그림 1>의 <3-영역>에 분류한 월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은 근대 자본주의체제라는 체제 수준의 분석단위를 설정하고 그 구조 내에서 작동하는 개별 국가의 역할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탈 노드적 이론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sup>19)</sup> 그러나 세계체제론의 체제나 구조의 개념을 이 글에서 논하는 네트워크의 개

15)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1977).

16) Robert O. Keohane, *Power and Governance in a Partially Globalized Worl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17) J.S. Nye, *Soft Power*.

18) 웬트의 이론이 지니는 잠재력은 행위자간의 간주관적(inter-subjective) 상호작용에 의해서, 즉 노드 간의 '링크(link)'의 양상에 의해서 노드의 정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점에서 웬트의 이론은 엄밀히 말해 <그림 1>의 <2-영역>과 <4-영역>의 경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9)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Academic Press, 1980).

념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세계체제론이 탈 노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체제 내의 노드 간 관계를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아키텍처’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체제론의 체제 수준의 발상은 여전히 단순계(simple system)의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복잡계(complex system)에 기반을 둔 본격적인 네트워크 발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국제정치의 작동메커니즘에 대한 세계체제론의 발상은 물질적 자원으로 이해되는 자본이라는 ‘하드파워’의 권력자원에 머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넓게 보아 현실주의 또는 자유주의로 분류되는 국제정치이론 진영 내에서도 노드의 시각을 넘어서는 네트워크 발상으로 지구화시대의 국가변환이나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가능성을 탐구한 선구적 작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그림 1〉의 〈4-영역〉). 예를 들어, 현실주의 전통에서도 영국의 국제정치학자인 스트레인지(Susan Strange)의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 개념이나 국민국가의 쇠퇴에 대한 논의는 국민국가라는 노드의 물질적 권력론을 넘어서는 이론적 시도의 단초를 보여주었다.<sup>20)</sup> 한편 전쟁과 안보 연구에서 아키야(John Arquilla)와 론펠트(David Ronfeldt)의 네트워크와 네트전(Netwar)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전략연구의 성격을 띠지만, 이론적인 차원에서도 네트워크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sup>21)</sup> 한편 자유주의적 성향을 띠는 경험적 연구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의 정부 간 네트워크 연구, 초국가 생산네트워크 연구, 신용평가기관과 금융네트워크 연구, 정책지식 네트워크 연구 등이 있다.<sup>22)</sup>

이밖에도 〈그림 1〉의 〈4-영역〉에 분류할 수 있는 탈 노드의 이론적 시도는 상당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구성주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 전통에서는 하아스(Peter Haas)나 애들러(Emanuel Alder) 등의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에 대한 연구가 네트워크 시각과 맥을 같이 한다.<sup>23)</sup> 또한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개념을 원용한 드잘레이(Yves Dezaley)와 가쓰(Briant G. Garth)의 국제 지식네트워크 연구도 선구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sup>24)</sup> 그런데 이러한 구성주의 시각의 인식공동체나 지식네트워크에

20) Susan Strange, *States and Markets*, (London and New York: Pinter, 1988); Susan Strange, *The Retreat of the State: The Diffusion of Power in the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21) John Arquilla and David Ronfeldt, eds., *Networks and Netwars: The Future of Terror, Crime, and Militancy*, (Santa Monica, CA: RAND, 2001).

22) Anne-Marie Slaughter, *A New World Order*,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Michael Borrus, Dieter Ernst, and Stephan Haggard, eds,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in Asia: Rivalry or Rich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Timothy J. Sinclair, *The New Masters of Capital: American Bond Rating Agencies and the Politics of Creditworthines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Diane Stone and Simon Maxwell, eds., *Global Knowledge Network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Bridges Across Boundaries*, (Oxford: Routledge, 2005).

23) Peter M. Haas, ed., *Knowledge, Power,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A Special Issu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1992); Emanuel Adler, *Communitari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Epistemic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24) Yves Dezaley and Briant G. Garth, *Dealing in Virtu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대한 연구는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탈 노드를 지향하는 네트워크의 시각보다도 좀 더 나아가서 일종의 ‘초(超) 노드적’ 또는 탈구조주의적(post-structuralist) 시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한편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신그람시주의 성향을 띠는 연구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그리고 노드와 네트워크를 모두 아우르는 이론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콕스(Robert Cox)는 이익-제도-관념의 동태적인 분석틀을 통해서 국가 노드의 안과 밖에서 작동하는 사회세력 형성과 세계질서 변화의 구성적 메커니즘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sup>25)</sup> 이밖에도 네오마르크스주의 진영의 국가론도, 주로 국내적인 차원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국가 노드의 네트워크화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sup>26)</sup> 좀 더 본격적으로 체제 차원에서 네트워크 발상을 도입하고 있는 연구로는 하트(Michael Hardt)와 네그리(Antonio Negri)의 ‘제국(empire)’과 ‘다중(multitude)’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sup>27)</sup> 특히 하트와 네그리의 연구는 명시적으로 ‘네트워크권력’이나 ‘네트워크국가’ 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선구적인 탈 노드의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가 부상하는 세계정치 현실의 변화속도에 비하면, <그림 1>의 <5-영역>을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이론적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존의 논의는 단편적인 개념들을 제시하는 차원에만 그치거나 또는 정책연구로 치우치고 있어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노드 차원을 넘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행위자들 간의 권력메커니즘을 읽어내는 새로운 이론적 발상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발상은 ‘하드파워’에 기반을 둔 평면적인 BoP의 이해를 넘어서 ‘스마트파워’를 추구하는 복합 네트워크들 간의 ‘세력망(勢力網, network of power, 이하 NoP)’에 대한 이해를 지향한다. 이러한 점에서 NoP의 발상은 단순한 ‘제로섬 게임의 발상’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비(非) 제로섬 게임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이 글은 <그림 1>에서 <1-영역>, <2-영역>, <3-영역> 등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논의를 <4-영역>을 거쳐서 <5-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시도를 벌이고자 한다.

---

*and the Construction of a Transnational Legal Order*, (Chicago, IL: Chicago University Press, 1996); Yves Dezaley and Briant G. Gart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alace Wars: Lawyers, Economists, and the Contest to Transform Latin American States*, (Chicago, IL: Chicago University Press, 2002).

25) Robert W. Cox, “Social Forc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10(2), (1981), pp.126-155; Robert W. Cox, *Production, Power and World Order: Social Forces in the Making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

26) Nicos Poulantzas, *State, Power, Socialism*, (London and New York: Verso, 1978); Bob Jessop,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Cambridge: Polity Press, 2003).

27)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New York: Penguin Press, 2004).

#### IV.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21세기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데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원용할 수 있을까? 네트워크라는 개념의 렌즈를 통해서 본 세계정치는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하고, 그러한 와중에 어떠한 행위자가 새로운 세계정치의 전면에 부상하며, 궁극적으로 21세기에는 어떠한 모습의 세계질서가 출현할까?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이 글은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세 가지 가정, 즉 ‘권력추구의 가정,’ ‘국가중심의 가정,’ ‘무정부상태의 가정’을 비판·보완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기본골격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네트워크권력의 가정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상정하는 국제정치의 목표는 권력이다. 권력의 축적 그 자체가 국제정치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실주의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권력은 현실주의가 상정하는 국가의 궁극적인 관심사인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현실주의가 염두에 두고 있는 권력은 주로 국제정치의 핵심 노드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 특히 부국강병을 보장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보유라는 관점에서 파악된다. 물질적 권력은 자원, 영토, 인구, 무기나 군대, GNP, 에너지 생산량 등과 같이 노드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능력에 의해 측정되고 평가되는데, 국제체제의 구조와 그 작동은 국제정치 행위자들 간의 이러한 권력자원의 상대적 분포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나 현실주의의 전통적인 권력추구의 가정이 상정하는 노드 기반의 물질적 권력 개념만으로는 네트워크 시대의 세계정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21세기 세계정치에서는 지식과 문화와 같은 비(非)물질적 권력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정치가 작동하는 방식도 강제와 제재의 메커니즘만이 아닌 설득과 동의의 메커니즘도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혁명과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우리 삶의 물질·지적 조건의 변화는 이러한 권력의 변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앞서 언급한 나이의 소프트파워 개념은 이러한 권력변환의 과정을 쉬운 용어로 잡아낸 대표적인 시도이다.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에서 보아도 나이의 소프트파워 개념은 행위자의 속성이나 보유자원에서 우리나라의 권력을 넘어서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탈 노드 차원의 권력에 대한 국제정치학계의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 시대를 맞이하여 변환을 겪고 있는 세계정치의 권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이의 소프트파워 개념보다는 좀 더 정교한 분석개념이 필요하다.<sup>28)</sup> 이러한 맥락에

28)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내에서 진행된 작업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한국적인 맥락에서 소프트파워의 개념적 수용을 다룬 작업으로는 다음을 참조. 평화포럼21 편,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21세기평화재단 평화연구소, 2005); 손열 편,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역성의 창조와 서울 컨센서스』(지식마당, 2007). 또한 정보혁명과 인터넷의 맥락에서 본 권력변환의

서 이 글은 현실주의의 ‘권력추구의 가정’을 넘어서는 의미에서 ‘네트워크권력의 가정’을 제안한다. 여기서 ‘네트워크권력’<sup>29)</sup>이라 함은 노드 자체가 아니라 노드들 간의 ‘관계’ 즉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권력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권력이라고 네트워크 형태의 행위자가 발휘하는 권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권력은 네트워크라는 환경에서 특정 노드 또는 노드군(群)이 발휘하는 권력인 동시에 노드를 제약하는 구조로서 네트워크가 행하는 권력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네트워크권력은, 행위자와 구조를 구별하기 힘든 네트워크의 속성을 고려할 때, 행위자와 구조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적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네트워크권력을 행위자와 과정 그리고 체제 차원에서 작동하는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고자 한다.<sup>30)</sup>

첫째, 네트워크를 하나의 행위자로 보면, 네트워크권력은 ‘네트워크로부터 나오는 권력(power from the network)’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네트워크권력은 여러 노드들이 모여서 네트워크 형태로 존재하는 행위자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못한 노드들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력을 말한다. 이는 일종의 행위자로서의 네트워크, 즉 ‘네트워커(networker)’가 행사하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군(群)’ 또는 ‘집(集)’을 통해서 ‘세(勢, force)’를 얻는 권력이다. 쉽게 말해, ‘끼리끼리 모이는 힘’인 셈이다. 소위 ‘네트워크 외부성’이나 ‘규모의 경제’ 효과, 그리고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네트워크권력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일종의 ‘권력자원’으로서의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권력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권력개념과 부분적으로 맥이 닿아 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의 ‘세(勢)’를 이루기 위해서 하드파워처럼 ‘밀어붙이는 완력’보다는 소프트파워처럼 ‘끌어당기는 매력(魅力, attractive power)’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새롭다.

둘째, 네트워크를 과정 차원에서 보면, 네트워크권력은 ‘네트워크상에서 발휘되는 권력(power on the network)’으로 이해된다. 네트워크상에서 권력은 무조건 노드의 덩치가 크거나 링크의 숫자가 많다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또는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 사이에서 차지하는 노드의 위치나 기능 또는 링크의 형태 등과 같은 요소로부터 권력은 비롯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트워크상에서 ‘통(通)하게 하는 권력’이다. 이러한 네트워크권력을 행사하는 노드의 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상이한 네트워크들을

---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상배 편, 『인터넷권력의 해부』 (한울, 2008). 이밖에 정보화시대의 권력변환이 세계정치, 특히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상배 외,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2008).

29) 학계에서 아직까지 네트워크 권력이라는 용어는 그리 흔히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네트워크권력 개념을 사용한 기존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M. Castells, “Informationalism,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M. Hardt and A. Negri, *Empire*; David Singh Grewal,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김상배,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전통적인 국제정치 권력이론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42(4), (2008).

30) 권력이론 일반에서 벌어졌던 ‘권력의 세 가지 얼굴(three faces of power)’에 대한 논쟁에 빚대어 이를 ‘네트워크권력의 세 가지 얼굴(three faces of network power)’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권력의 세 가지 얼굴 논쟁’에 대한 소개와 비판적 검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effrey C. Isaac, “Beyond the Three Faces of Power: A Realist Critique,” *Polity*, 20(1), (1987), pp.4-31.

양적·질적으로 연결하며 호환성과 상호작용성을 제공하는 ‘스위치(switcher)’<sup>31)</sup>의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스위치가 되는 노드의 권력은 ‘권력환경’으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데에서 우리나라이다. 이러한 스위치의 권력은 주변 노드들로부터 신뢰를 이끌어내는 노드의 능력, 특히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그 흐름을 통제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크게 의지한다.

끝으로, 네트워크를 체제 차원에서 보면, 네트워크권력은 ‘네트워크 자체가 행사하는 권력(power of the network)’으로 이해된다. 네트워크라는 체제에 상호작용의 규칙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심어 넣는 ‘프로그래머(programmer)’의 권력을 떠올려 볼 수 있다.<sup>32)</sup>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권력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이 짜이고 나면 네트워크는 그 프로그램의 매뉴얼에 입각해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어떠한 경우에는 싫지만 받아들여야만 또는 알고서도 당하는 권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프로그래머의 권력은 네트워크를 장악하려는 어느 특정 노드가 의도적으로 행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어느 특정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망(網)’ 자체가 행사하는 권력, 달리 말해 네트워크에 스며들어 있는 일종의 비인격적(impersonal) 권력일 수도 있다. 이러한 권력은 기술적인 형태의 코드나 프로토콜 또는 기술표준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일종의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sup>33)</sup>

요컨대,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현실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권력이 얽혀서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매력 자원을 보유하고 가능한 한 많은 노드를 끌어들여 ‘세(勢)’를 불리는 노드(또는 네트워크)가 ‘네트워크’의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네트워크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드가 자신을 ‘통(通)’해서 네트워크가 작동케 하는 ‘스위치’가 되기에 유리하다. 대체적으로 네트워크나 스위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노드가 네트워크 자체의 프로그래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프로그래밍된 네트워크가 그 프로그래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망(網)’의 권력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네트워크권력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현실 세계정치의 지대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기존에 권력을 장악하

31) 이 글에서는 스위치를 네트워크상에서 권력을 발휘하는 노드(또는 노드의 집합)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스위치에는 그 역할의 성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하위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내용의 변화가 없이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들을 스위칭하는 ‘문지기(gatekeeper),’ 둘째, 내용의 변화가 없이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들을 스위칭하는 ‘변환기(transformer),’ 셋째, 내용의 변화를 수반하며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들을 스위칭하는 ‘중개인(broker),’ 끝으로 내용의 변화를 수반하며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들을 스위칭하는 ‘해석자(interpreter)’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김상배,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전통적인 국제정치 권력이론을 넘어서”를 참조.

32) 이러한 프로그래머의 권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첫째는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이 행사하는 비(非)의도적 권력으로서의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이다. 둘째는 네트워크의 법이나 규칙을 정하는 제정자(legislator)의 권력인데, 이는 일종의 ‘제도적 권력(institutional power)’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네트워크에 기본적인 목적과 철학을 부여하는 건축가(architect)적 권력이다. 이는 탈구조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성적 권력(constitutive power)’ 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김상배,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전통적인 국제정치 권력이론을 넘어서”를 참조.

33)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원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 (한울, 2007); Manuel Castells, *The Power of Identity,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2004).

고 있던 측이나 또는 이에 대해서 견제 또는 도전을 제기하는 측 모두에게 네트워크권력을 행사할 기회는 열려 있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권력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측만이 네트워크 세계정치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네트워크국가의 가정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 있어서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는 국가이다. 국가를 다른 국제정치 행위자와 구별짓는 특징적인 속성은 주권과 영토성이다. 주권국가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지고의 권위를 가지며, 권력을 독점적으로 조직하고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가에게는 전통적인 도덕의 덕목이 아닌 정치적 필요에 의거한 다른 종류의 덕목이 적용된다. 국가는 안보의 달성과 국가이익의 극대화라고 하는 도구적 목표를 지향하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그려진다. 이러한 국가행위의 준거는 소위 ‘국가이성(raison d’etat)’의 사상에 기원을 둔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이렇게 주권원칙과 영토성을 기반으로 하여 작동하는 국민국가는 국제정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노드 행위자이다.

그런데 현실주의의 전통적인 국가중심의 가정이 상정하는 것처럼 국민국가라는 노드에만 시각을 고정하고 여타 행위자를 무시하는 발상으로는 세계정치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초국가 네트워크 형태를 띠는 행위자들이 새롭게 부상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행위자들의 사례로는 다국적 기업이나 지구 시민사회 단체들, 정책지식 분야의 지구 싱크탱크 네트워크, 전문가나 과학자들의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 등을 들 수 있다. 하물며 최근 미국의 세계패권에 대항하는 테러집단이나 반미운동,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경향의 지구화에 대항하는 반지구화 운동 등도 모두 초국가 네트워크의 형태로 작동한다. 특히 이들 초국가 네트워크 행위자들은 정보혁명, 특히 인터넷의 확산에 힘입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그 영향력을 증대시켜 가고 있다.<sup>34)</sup>

그렇지만 아무리 비(非)국가 행위자들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더라도 21세기 세계정치에서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을 것으로 예견된다. 초국가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기존에 국가가 담당했던 ‘공익’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up>35)</sup> 네트워크 시대에도 여전히 국가에 요구되는 역할은 네트워크상의 다양한 사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네트워크 중심성(network centrality)’의 제공에 있다.<sup>36)</sup>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집중

34) 네트워크 행위자의 부상을 정보화의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세계정치> 29(1), 기획특집, (논형, 2008); 지구 사회운동을 복잡계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Graeme Chesters and Ian Welsh, *Complexity and Social Movements: Multitudes at the Edge of Chao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6).

35) 지구시민사회를 넘어서는 지구국가에 대한 문제제기로는 다음을 참조. Martin Shaw, *Theory of the Global State: Globality as an Unfinished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orten Ougaard and Richard Higgott, eds., *Towards a Global Pol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화(centralization)와 구분되는 의미에서 본, '중심성'을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조정자'의 역할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의 조정자 역할은 기능적인 차원에서 행정조직들의 관할권의 경계를 넘어서 또는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넘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국가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네트워크권력 또는 '네트워크주권(network sovereignty)'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자신을 세울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sup>37)</sup>

이렇듯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여전히 남더라도 이를 제공하는 국가의 형태는 더 이상 종전과 같은 노드형의 국민국가는 아니다. 실제로 국민국가는 그 경계의 안과 밖에서 변환을 겪으면서 네트워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는 국가의 부상은 국가 활동에 있어서 영토적 공간의 적실성이 상실되는 현상과 '국민·민족(nation)'이라는 정치·문화 공동체가 재조정되는 현상을 수반한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한편으로, 국가는 개별국가 차원에 주어지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영토적 경계를 넘어서 국제적이고 지역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초국적 차원의 제도적 연결망을 구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국가의 주권이 여타 행위자들과 공유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자신의 기능과 권한을 적절하게 국내의 하위 단위체에 분산·이전시킴으로써 그 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다. 이는 주로 지방자치정부나 비정부 기구들이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나타나며, 국민·민족의 정체성으로부터 분화된 시민사회, 이익집단, 지방사회, 개인 등이 형성하는 탈 국민·민족 네트워크의 출현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국민국가를 넘어서 부상하고 있는 국가를 '네트워크국가'라고 부르고자 한다.<sup>38)</sup>

이렇게 통합과 분화의 동학을 동시에 보여주는 네트워크국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여타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가? 네트워크국가는 기존의 국가 행위자들과 비국가 행위자들이 얽혀서 구성되는 다층적인 네트워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네트워크국가는 국민국가 간 네트워크,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정부 간 네트워크의 형태를 띤다. G8이나 OECD와 같이 국가군별로 관심사에 따라서 형성되는 공식 외교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sup>39)</sup>

36) Christopher K. Ansell, "The Networked Polity: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Governance*, 13(3), (2000), p.309.

37) 이러한 문제의식은 소위 '지식국가(knowledge state)' 연구에 반영되어 있다. 지식국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최정운, 『지식국가론: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의 노동통계 발달의 정치적 의미』 (삼성출판사, 1992); Seán Ó Riain, *The Politics of High-Tech Growth: Developmental Network States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38) 네트워크국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Martin Carnoy and Manuel Castells, "Globalization, the Knowledge Society, and the Network State: Poulantzas at the Millennium," *Global Networks*, 1(1), (2001), pp.1-18; Christopher K. Ansell and Steven Weber, "Organizing International Politics: Sovereignty and Open System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0(1), (1999), pp.73-93;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39) 슬로터(Anne-Marie Slaughter)는 이러한 정부간 네트워크 중에서 국가기구의 기능적 분화를 바탕으로 하여 유사조직들이 형성하는 '초정부주의 네트워크'를 '해산된 국가(disaggregated state)'의



또한 네트워크국가는 국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들까지 참여하여 형성하는 복합 네트워크의 형태를 띤다. 이는 국가, 국제기구, 비국가 행위자 등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 최근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이러한 모델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네트워크국가는 공간지리적인 차원에서 영토국가의 단위를 넘어서 지역 차원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 즉 지역통합체의 형태를 띤다. 이는 국민·민족을 안과 밖에서 넘어서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는데, 지역 차원에서 초국적 지역조직이 형성되며 국내 차원에서는 지방정부들이 참여하는 국가하부 네트워크도 활성화된다.

이러한 네트워크국가의 출현은 지역에 따라서 진행되는 속도와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사실 새로운 행위자로서의 네트워크국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유럽연합의 경험적 사례를 염두에 두고 시발되었다.<sup>40)</sup> 그렇지만 최근 지구화의 맥락에서 미국이 모색하고 있는 ‘제국적 네트워크(imperial network)’도 네트워크국가의 한 형태로 파악 가능하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재편 시도나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 국내체제의 아키텍처는 ‘미국형 네트워크국가’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sup>41)</sup> 또한 동아시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통합도 네트워크국가의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동아시아의 사례는, 앞서의 두 사례에 비해서, 네트워크국가를 추구하는 경향보다는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들이 전면에서 나서는 노드의 국제정치가 여전히 우세하다는 특징을 지닌다.<sup>42)</sup>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21세기 세계정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국가들이 서로 경합을 벌이는 ‘네트워크국가 간 정치(politics among network states)’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 3. 네트워크아키(networkarchy)의 가정

국민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상정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보는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anarchy)이다. 국내체제와는 달리 국제체제에는 개별국가의 상위에 국내정부에 상응하는 권위체가 없다. 이러한 무정부상태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자조(自助, self-help)의 행위는 합리적 원칙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행위는 다른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고, 이는 또 다시 자국의 안보에 대한 불안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이러한 안보 불안의 확산 과정은 흔히 ‘안보딜레마’라고 불리는데, 이를 극복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A. Slaughter, *A New World Order*.

40) M. Carnoy and M. Castells, “Globalization, the Knowledge Society, and the Network State”; Manuel Castells, *End of Millennium*,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2000); Christopher K. Ansell, “The Networked Polity: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Governance*, 13(3), (2000), pp.303-333.

41) 미국의 제국네트워크와 네트워크국가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M. Hardt and A. Negri, *Empire*;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제국: 지식/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 『세계정치』, 26(1), (2005), pp.93-120;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제5장.

42) 동아시아에서는 국가들의 네트워크화가 약한데 비해 비국가 행위자들의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출현하는 현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지적으로는 다음을 참조.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shi, eds.,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메커니즘으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세력균형(BoP)의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의 틀에서 보면,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는 국가들 간의 공존은 세력균형의 유지를 통해서 획득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가들 간의 협력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실주의의 ‘무정부상태의 가정’은 국가라는 노드를 주요 행위자로 상정하는 전제에서 세워졌다. 그런데 만약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21세기 세계정치의 주요 행위자가 노드형의 국민국가가 아니고, 그 영토적 경계의 안과 밖으로 네트워크화되는 국가라면 이들이 구성하는 세계질서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야 할까? 세계질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의 성격이 변화한다면, 당연히 그들이 단위가 되어 형성되는 세계질서의 조직 원리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무정부상태라는 것도 세계정부의 부재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국가들이 사회적으로 구성해낸 결과라고 한다.<sup>43)</sup> 그렇다면 네트워크국가들이 사회적으로 구성해 내는 세계질서는 어떠한 모습일까?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에는 아직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연구가 너무나도 일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떠올려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이미지는 기존의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그리고 있는 무정부상태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모습이다.

이 글에서는 네트워크국가들이 만드는 세계질서를 노드형의 국민국가가 만드는 ‘단순계(simple system)’와 구별되는 의미에서 파악되는 ‘복잡계(complex system)’로서 이해하고자 한다.<sup>44)</sup> 그렇다면 이러한 네트워크국가의 복잡계는 구성단위들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형성되는 개념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제정치이론에서 흔히 거론되는 ‘체제(system)↔사회(society)↔공동체(community)’의 스펙트럼을 떠올려 보자. 우선 네트워크 국가들이 구성하는 세계질서는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상정하는 ‘단순계로서의 체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네트워크국가들이 구성하는 세계질서가 단위들 간에 규범이나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이거나, 아니면 단위들 간의 정체성까지도 중첩되는 ‘공동체’라고 볼 수는 더욱 없을 것 같다. 이 글에서는 네트워크국가들이 형성하는 세계질서를 단순계로서의 ‘체제’와 규범이 공유되는 ‘사회’의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창발(創發, emergence)’의 과정을 겪고 있는 ‘복잡계로서의 체제’라는 가정을 세우고자 한다.

이렇게 네트워크국가들이 구성하는 ‘복잡계로서의 체제’를 굳이 명명하자면, 무정부상태(anarchy)와 위계질서(hierarchy)의 중간에 설정되는 ‘네트워크아키(networkarchy)’<sup>45)</sup>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아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향후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도

43)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2), (1992), pp.391-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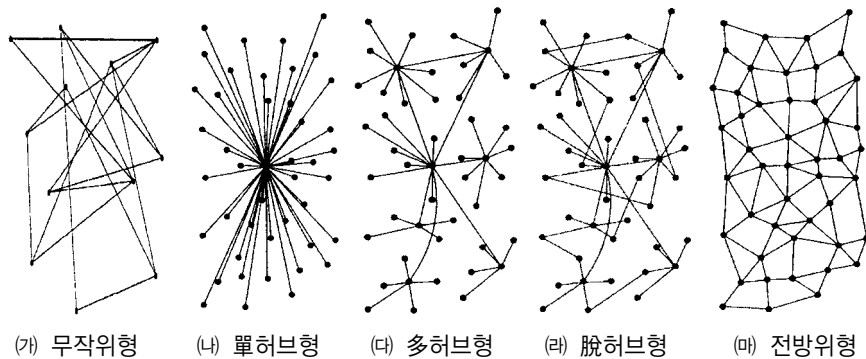
44) 복잡계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국제정치학에의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민병원, 『복잡계로 풀어내는 국제정치』.

45) 이 글에서 제안한 ‘네트워크아키(networkarchy)’를 무엇으로 번역할 것이냐의 문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상태, 네트워크질서, 네트워크지배 등으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연구의 초기 단계인 관계로 중립적으로 음차하여 사용하였다.

전적인 과정은 네트워크아키가 지닌 일종의 ‘메타질서(meta-order)’로서의 개념적 특성을 밝히는 일이다. 이 글이 염두에 두는 네트워크아키의 개념은 무정부상태나 위계질서와 동일한 차원에서 이들 개념을 대체하는 또 하나의 질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복잡계로서의 네트워크아키는 ‘질서들의 질서(archy of archies)’ 또는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라는 차원에서 이해되는 메타질서의 개념이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아키란 상이한 조직 원리를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유형의 질서가 복합된, 그야말로 ‘복합질서’이다. 기존의 국가 노드들이 벌이는 국제정치, 새로운 네트워크들이 벌이는 네트워크 세계정치, 그리고 노드 행위자와 네트워크 행위자들 간에 벌어지는 ‘망제정치(網際政治)’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질서 개념이다.

이러한 메타질서 또는 복합질서로서의 네트워크아키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의 유형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원용해 보자. 네트워크이론에 의하면,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유형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극단에 있는 무작위(random)형과 전방위 결집(lattice)형이라는 이상형의 사이에 존재하는 허브형 네트워크의 모습을 띠고 있다.<sup>46)</sup> 이 글에서는 이러한 허브형 네트워크를 i) 단(單) 허브형, ii) 다(多) 허브형, iii) 탈(脫) 허브형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유형화를 21세기 세계정치에 거칠게나마 원용해 보면, 현재 경합을 벌이고 있는 네트워크시대 세계질서의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각각의 유형이 지니는 특징과 이에 대칭하는 세계질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네트워크의 다섯 가지 유형<sup>47)</sup>



46) 여기서 무작위형이 효율성 모델 또는 혼란(chaos) 모델이라면, 전방위 결집형은 형평성 모델 또는 질서(order)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네트워크의 유형은 현실에는 존재하기 힘들다. 실제로 현실은 이러한 스펙트럼 상에서 무작위형의 혼란으로부터 전방위형의 질서로 이행하는 소위 ‘창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첼 월드롭, 『카오스에서 인공생명으로: 복잡성의 과학』 (범양사, 1995); 스티븐 존슨, 『이머전스』 (김영사, 2004); 제임스 클라크, 『카오스: 현대 과학의 대혁명』 (동문사, 1993). 한편, 허브형 네트워크 또는 ‘척도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의 출현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A. Barabási, *Linked*.

47) Paul Baran, “On Distributed Communications: Introduction to Distributed Communications Network.” *RAND Memorandum*, RM-3420-PR, (1964).

먼저 ‘단 허브형 네트워크’는 제국(帝國, empire) 모델에 해당된다. 특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로마제국, 중화제국, 이슬람제국, 대영제국 등을 이러한 모델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의 사례로는 지구화와 대(對) 테러전쟁의 수행과정에서 드러난 ‘21세기 제국’으로서의 미국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단 허브형 네트워크에서 제국은 허브 노드의 단위를 넘어서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제국 모델은 중심에 있는 단 허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노드와 링크를 모두 활용해야 이해할 수 있는 모델, 즉 체제 자체가 단위가 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하트(Michael Hardt)와 네그리(Antonio Negri)의 논의에서 ‘외부의 경계를 갖지 않는’ 질서로서의 ‘21세기 제국’에 대한 이미지는 바로 이러한 제국 네트워크의 특성과 일맥상통한다.<sup>48)</sup>

둘째, ‘다 허브형 네트워크’는 국민국가체제 모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국민국가는 각 허브와 그 주위의 노드들에 그룹핑을 위한 테두리 선(점선 또는 실선)을 그어놓은 노드군(群)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노드군들이 하나의 행위자가 되어 상호작용하는 ‘국제정치’의 모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슷한 규모를 갖는 노드군들의 상위에도 다른 권위체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주의가 상정하는 ‘무정부상태’나 세력균형(BoP)의 질서를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다 허브형 네트워크 중에서 국민국가 모델의 변형으로는 ‘제국주의(imperialism) 모델’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다 허브형에서 어느 특정 허브(또는 노드군)가 제국과도 같은 단 허브의 패턴을 흉내 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세기 유럽의 국민국가가 대외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식민지국가’의 네트워크를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탈 허브형 네트워크’는 최근 탈근대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에 해당된다. 이러한 탈 허브형의 아키텍처는 다 허브형과 전방위형의 중간 형태를 띠며, 그 작동방식을 보면 다 허브형에서 허브를 경유하지 않는 노드들 간의 교류가 점차로 증대되는 형태이다. 다시 말해, 국민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하는 다 허브형의 네트워크에서 다국적 기업이나 시민사회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네트워크상에서 허브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그래서 전방위형 네트워크로 근접해가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굳이 개념을 붙이자면, 이러한 탈 허브형은 단 허브형인 제국에 대립되는 의미로서 ‘제망(帝網)’ 또는 ‘다중(多衆, multitude)’의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다.<sup>49)</sup>

요컨대, 네트워크아키는 이상의 세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들이 모두 합쳐지는 복합질서인 동시에 서로 상이한 이들 네트워크들을 엮어내는 메타질서라고 할 수 있다.<sup>50)</sup> 네트워크아키는

<http://www.rand.org/publications/RM/RM3420/> (검색일: 2004년 12월 4일)에서 응용하여 재작성;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제국,”에서 재인용.

48) M. Hardt and A. Negri, *Empire*.

49) M. Hardt and A. Negri, *Multitude*.

50)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복수의 질서들이 서로 조율되면서 작동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정보화시대의 물리적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인터넷이라는 존재의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지니는 집중과 탈집중 네트워크로서의 이중성은 세계정치의 복합질서가 형성되고 작동하는 과정과 밀접한 친화성이 있다. 정보기술과 세계질서의 변환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Ronald J. Deibert, *Parchment, Printing, and Hypermedia: Communication in*

다 허브형 네트워크로 개념화되는 근대 국가체제가 변환을 겪는 와중에 단 허브형 네트워크의 제국질서와 탈 허브형 네트워크의 글로벌 거버넌스형 질서가 중첩되는 형태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질서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행위자들이 득세하는 전면적인 ‘탈집중 네트워크’만 관찰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로 어느 특정 국가의 세력이 전체 네트워크를 압도하는 ‘집중 네트워크’가 부상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21세기 세계정치의 현실은 세 가지 네트워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교묘하게 얽히면서 운영되는 복합질서가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아키의 복합적 아키텍처는 로즈나우(James Rosenau)가 말하는 분절(分節, fragmentation)과 통합(統合, integration)의 복합질서인 ‘분합(分合, fragmentation)’의 세계질서를 연상시킨다.<sup>51)</sup>

## V. 맺음말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변환이 발생하고 있다. 근대 국제정치를 주도해온 국가 행위자들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활동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행위자들이 새로이 세계정치의 전면 에 나서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나 지구 시민사회 단체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힘을 얻는 현상과 함께 기존의 국가 행위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과정에서 21세기 세계정치 행위자들이 벌이는 권력정치의 메커니즘은, 행위자의 속성이나 보유자원에서 우러나오는 물질적 권력을 넘어서,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근대 국제체제의 그것과는 상이한 조직 원리에 근거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출현마저도 예견된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정치 현실에 비해서 기존의 국제정치이론 진영들은 다소 둔감한 반응을 보이는 감이 없지 않다. 복합 네트워크의 부상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국제정치 현실을 배경으로 출현한 기존의 이론들은 주로 노드 차원의 발상에 머물고 있어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탈 노드적 변화에 기민한 대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기존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기본가정, 즉 권력추구의 가정, 국가중심의 가정, 무정부상태의 가정 등에 대한 비판의 작업을 펼쳤다. 그러나 현실주의의 세 가지 기본가정을 버리기보다는 비판·보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이 글은 기본적으로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을 네트워크 시대의 세계정치 변화에 걸맞게 발전시키려는 이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글이 제시하는 소위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세 가지 가정’은 다음과 같다. i) 네트워크 권력의 가정: 네트워크 세계정치에서는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노드 중심의 물질적 권력을 넘어서 네트워크의 맥락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ii) 네트워크국가의 가정: 네

*World Order Transform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51) J. N. Rosenau, *Distant Proximities*.

트위크 세계정치에서 주요 행위자는 기존의 국민국가가 그 경계의 안과 밖으로 변환되면서 그 역할과 형태가 재조정되는 네트워크국가이다. iii) 네트워크아키의 가정: 네트워크국가들이 구성하는 세계질서는 국민국가 중심의 단순질서를 넘어서 복수의 세계질서들이 중첩되는 네트워크아키의 복합질서이다. 이러한 세 가지 가정에 대한 논의는 해외 학계의 논의를 단순히 소개 차원을 넘어서 한국적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세계정치이론을 모색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보다 좀 더 나은 설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이론적 과제가 매우 많다. 특히 이 글에서 시론의 차원에서 던진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화두는 앞으로 구체적인 경험적 작업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근의 한반도 주변정치에 눈을 돌려보면, 동아시아에서도 태생적으로 복합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면에서 부상하고 있고 있을 알게 된다. 소위 'IMF 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초국적 금융네트워크이나 다국적 기업네트워크의 영향력은 급속히 증대되었다. 동아시아의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한 지구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개입도 늘어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한 정보화의 영향으로 확산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복합 네트워크의 부상을 논할 수는 없다. 특히 거의 실시간으로 지구 어느 곳이나 미칠 수 있는 유선과 무선의 인터넷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과 정보와 지식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상호 교감과 행동 공조의 네트워크가 가능해 졌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네트워크 정치에서 새로운 행위자들의 활동을 규제하려는 국가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지구화의 침단을 달리는 금융과 해외투자 분야에서도 미국과 유럽 및 동아시아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과 제도가 존재한다. 중국과 북한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권과 같은 국내정치 문제에서 최종권한을 쥐고 있는 존재는 여전히 국가이다. 한편 이러한 와중에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국가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현상도 늘어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일례로는 '북한 핵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남북한 등이 개최한 '6자 회담'을 들 수 있다. 게다가 노드형의 국민국가 자체가 네트워크 형태를 닮아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데,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시발되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그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지역통합의 움직임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21세기 세계정치와 동아시아 정치는 기존의 국가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네트워크와 새롭게 부상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간에 벌어지는, 그야말로 '네트워크 간의 경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합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해되는 '노드의 국제정치'와 이를 넘어서려는 '탈 노드의 세계정치'가 벌이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비전을 둘러싼 경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러한 세계정치는 기존의 '국제정치'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라는 용어와 대비되는 의미로 조어(造語)해 보는,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가 공존하는 일종의 '메타 네트워크(meta-network)'의 세계정치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이 담고 서 있는 '노드 간의 정치'의 시각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적인 세계정치의 변화를 잡아낼 수 없다. 요컨대 노드의 국제정치를 넘어서 부상하고 있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에 대한 좀 더 본격적인 이론적·경험적 작업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글래드웰, 말콤. 『티핑 포인트』 (21세기북스, 2004).
-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제국: 지식/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 『세계정치』 26(1), (2005). pp.93-120.
- 김상배. “복잡계이론과 네트워크 세계정치론,” 삼성경제연구소 복잡계 심포지엄 발표논문, (2006).
-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윈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 (한울, 2007).
- 김상배.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전통적인 국제정치 권력이론을 넘어서,” 『한국정치학 회보』 42(4), (2008).
- 김상배 편. 『인터넷권력의 해부』 (한울, 2008).
- 김상배 외.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2008).
- 김용학. 『사회 연결망 이론』 개정판. (박영사, 2007).
- 민병원. 『복잡계로 풀어내는 국제정치』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세계정치> 29(1), 기획특집. (논형, 2008).
- 손열 편.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역성의 창조와 서울 컨센서스』 (지식마당, 2007).
- 와츠, 던컨. 『Small World: 여섯 다리만 건너면 누구와도 연결된다』 (세종연구원, 2004).
- 월드롭, 미첼. 『카오스에서 인공생명으로: 복잡성의 과학』 (범양사, 1995).
- 존슨, 스티븐. 『이머전스』 (김영사, 2004).
- 최정운. 『지식국가론: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의 노동통계 발달의 정치적 의미』 (삼성출판사, 1992).
- 클라크, 제임스. 『카오스: 현대 과학의 대혁명』 (동문사, 1993).
- 평화포럼21 편.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 (21세기평화재단 평화연구소, 2005).
- 하영선. “세계정치의 변환과 한반도,” 하영선·남궁곤 편,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2007), pp.12-31.
- 하영선 편.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동아시아연구원, 2006).
-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2006).
- Adler, Emanuel, *Communitari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Epistemic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 Ansell, Christopher K, “The Networked Polity: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Governance*, 13(3), (2000), pp.303-333.

- Ansell, Christopher K. and Steven Weber, "Organizing International Politics: Sovereignty and Open System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0(1), (1999), pp.73-93.
- Arquilla, John and David Ronfeldt, eds., *Networks and Netwars: The Future of Terror, Crime, and Militancy*, (Santa Monica, CA: RAND, 2001).
- Barabási, Albert-László,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2002).
- Baran, Paul, "On Distributed Communications: Introduction to Distributed Communications Network," *RAND Memorandum*, RM-3420-PR, (1964).  
(<http://www.rand.org/publications/RM/RM3420/>) (검색일: 2004년 12월 4일).
- Benkler, Yochai,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6).
- Borras, Michael, Dieter Ernst, and Stephan Haggard, eds,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in Asia: Rivalry or Rich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 Braman, Sandra, *Change of State: Information, Policy, and Power*,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6).
- Braman, Sandra, ed., *The Emergent Global Information Policy Regim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 Carnoy, Martin, and Manuel Castells, "Globalization, the Knowledge Society, and the Network State: Poulantzas at the Millennium," *Global Networks*, 1(1), (2001), pp.1-18.
- Castells, Manuel,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2000).
- Castells, Manuel, *End of Millennium,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2000).
- Castells, Manuel, *The Power of Identity*,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2004).
- Castells, Manuel, "Informationalism,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A Theoretical Blueprint," in Manuel Castells, 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2004), pp.3-48.
- Chesters, Graeme, and Ian Welsh, *Complexity and Social Movements: Multitudes at the Edge of Chao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6).
- Cox, Robert W., "Social Forc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10(2), (1981), pp.126-155.
- Cox, Robert W., *Production, Power and World Order: Social Forces in the Making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
- Deibert, Ronald J., *Parchment, Printing, and Hypermedia: Communication in World Order Transform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 Dezaley, Yves and Briant G. Garth, *Dealing in Virtu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Transnational Legal Order*, (Chicago, IL: Chicago University Press, 1996).
- Dezaley, Yves and Briant G. Gart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alace Wars: Lawyers, Economists, and the Contest to Transform Latin American States*, (Chicago, IL: Chicago University Press, 2002).
- Gould, Roger V., "Uses of Network Tools in Comparative Historical Research," in James Mahoney and Dietrich Rueshemeyer, ed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Social Scienc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241-269.
- Grewal, David Singh,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Haas, Peter M. ed., *Knowledge, Power,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A Special Issu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1992).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New York: Penguin Press, 2004).
- Isaac, Jeffrey C., "Beyond the Three Faces of Power: A Realist Critique," *Polity*, 20(1), (1987), pp.4-31.
- Jervis, Robert, *System Effects: Complexity in Politics and Social Lif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Jessop, Bob,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Cambridge: Polity Press, 2003).
- Katzenstein, Peter J. and Takashi Shiraiishi, eds.,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1977).
- Keohane, Robert O.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 Keohane, Robert O., *Power and Governance in a Partially Globalized Worl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 Latour, Bruno, *Reassess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Law, John and Annemarie Mol, eds., *Complexities: Social Studies of Knowledge Practices*, (Duke University Press, 2002).
- MacKay, Joseph, "State Failure, Actor-Network Theory, and the Theorisation of

- Sovereignty,” *BSI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3, (2006), pp.59–96.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48).
- Nye, Joseph S.,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 Ó Riain, Seán, *The Politics of High-Tech Growth: Developmental Network States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Ougaard, Morten, and Richard Higgott, eds., *Towards a Global Pol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 Poulantzas, Nicos, *State, Power, Socialism*, (London and New York: Verso, 1978).
- Rosenau, James N.,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 Governance*, 1, (1995), pp.13–43.
- Rosenau, James N., *Distant Proximities: Dynamics beyond Global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 Rosenau, James N., *Turbulence in World Politics: A Theory of Change and Continu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Shaw, Martin, *Theory of the Global State: Globality as an Unfinished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Sinclair, Timothy J., *The New Masters of Capital: American Bond Rating Agencies and the Politics of Creditworthines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 Slaughter, Anne-Marie, *A New World Order*,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Stone, Diane and Simon Maxwell, eds., *Global Knowledge Network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Bridges Across Boundaries*, (Oxford: Routledge, 2005).
- Strange, Susan, *States and Markets*, (London and New York: Pinter, 1988).
- Strange, Susan, *The Retreat of the State: The Diffusion of Power in the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Urry, John, *Global Complexity*, (Cambridge: Polity, 2003).
- Wallerstein, Immanuel, *The Modern World-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Academic Press, 1980).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
- Wendt, Alexander,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2), (1992), pp.391–425.
- 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Questing for the Network Theory of World Politics : Beyond Three Assumptions in the Realist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Kim, Sangba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Politics, as the words show in themselves, is an academic discipline that explores the politics among nations(inter-nations). Indeed, the existing stud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have paid attention to bilateral or multilateral relations among nation-states as dominant play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Various changes of these days, however, are creating a more complex politics, which cannot be grasped from the traditional perspective, which assumes nation-states as major nodes(or actors), and examines links between those nodal actors. For example, newly increasing are transnational activities of networked actors, which bypass the nodes of nation-states and interact directly to one another. Coping with these changes, nation-states themselves as nodal actors are also being transformed into a form of networked entity from inside as well as toward outside. Indeed, we are currently observing a multi-level competition between the traditional politics upheld by nation-states and the new politics boosted by networked actors, which could be called the so-called “inter-network politic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ttempts to apply the network theory, which has been presented by natural and social scientists, to International Politics, and aims to develop “the Network Theory of World Politics(NTWP)” in a preliminary manner.

투 고 일 : 2008년 9월 26일  
심 사 일 : 2008년 10월 20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2월 22일